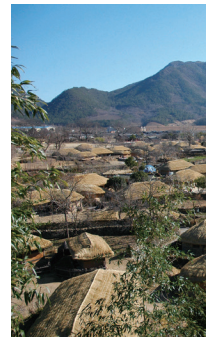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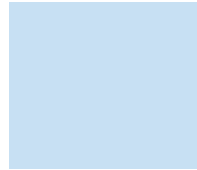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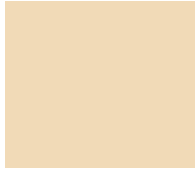


# 지방자치실천포럼



## 이달의 Issue | 골목경제

### ○ 특별대담

- 문화가 숨쉬는 사람 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  
: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실천포럼 통권 제76호 / 발행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하혜수 / 편집위원장 이창균  
위원 권오철 박진경 김건위 김성주 김대욱 강영주 / 담당부서 연구기획과  
연락처 T 02-3488-7361 F 02-3488-7305 / 홈페이지 www.krila.re.kr / 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 본 지방자치실천포럼은 매월 말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메일 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무료) newsletter@krila.re.kr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지방자치실천포럼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



# CONTENTS

November 2015 | vol.76

2015. 11

## 이달의 Issue

- 골목경제

### 04 특별대담

- 문화가 숨쉬는 사람 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  
: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

### 13 논단

- 이제는 골목경제에 주목하자  
-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방안

### 22 국내외 우수사례

- 임꺽정 이야기가 살아있는 거리, 부천시 역곡 임꺽정로  
- 골목경제 활성화 해외사례:  
중국 상하이 티엔즈팡(田子坊) 예술골목

### 31 지방자치단체 탐방

- 국가 정원 1호, 순천만 정원을 품고 있는 순천

### 34 연구원 동정



04



22



31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

문화가 숨 쉬는 사람 중심 문화도시

종가집 중구



일시 및 장소 2015년 10월 5일(월) /  
울산 중구청장 집무실  
인터뷰 대상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  
인터뷰 진행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박승규 수석연구원** 원도심 활성화와 혁신도시 성공으로 “활기있는 지역경제”를  
구정 방침 중 하나로 제시하였는데, 중구 도심 내 골목상권 및 골목경제를 활용하기  
위한 중구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서 소외된 이면골목길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관점으로는 소외되었던 지역의 잠재자산을 발굴하여 재창  
조한 골목경제 활성화는 원도심의 필수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원도심의 흥물로 전략한 숙박시설(여관)을 청년층뿐만이 아니  
라 노년층의 창업까지 지원하는 비즈니스몰로 탈바꿈시키는 신개념의 경제활성  
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60년대 울산공업도시 지정 이후 전국 각지에서 몰려  
든 젊은이들이 하숙의 개념으로 장기 숙박을 했었지만 현재 신도심의 등장으로  
그 형태만 겨우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을 간직한 공간들을 향후 울산읍성 둘레길, 고복수길 등과 연계시켜 한국형 골목경제의 창조 모델로 조성하여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 중장년층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게스트하우스 및 창업인큐베이터,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청년층 실업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골목상권과 연계한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여 자생적 로컬경제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 현재 우리 구 원도심 부활의 주역인 문화의 거리·골목길 아트프로젝트·골목경제활성화 시범사업과의 순환적 통합도시구조를 실현시켜 나감으로써 울산이 문화소외도시, 공장뿐인 산업도시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문화로 복지를 실현하는 청년·중노년층 창업자들의 꿈을 현실화하는 新울산브랜드를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박승규 수석연구원** 구청장님의 민선 공약사항 중 “모두가 잘사는 서민경제”의 세부사업에 대한 역할 및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들의 역할 외에 견인된 성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 울산은 부자도시라는 인식이 강합니다만 우리 중구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산업수도 울산의 모태였던 중구는 1990년대 이전까지는 호황을 맞았으나 중심상권이 남구 등 신도시로 이동하고 역세권까지 옮겨가면서 급속한 쇠퇴를 맞이하였고 재개발이 장기화되면서 대한민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도시침체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울산경제를 책임졌던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자가 대거 중구로 집중되면서 지역의 노후화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민선6대 구청장 재선을 준비하게 되면서 침체된 우리 중구에 필요한 활력소가 무엇인지에 심사숙고했고 그 결과 우리 중구는 울산 거대 산업경제 속에 소외된 서민경제에 주력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퇴자 교육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노후준비가 부족한 어르신 세대를 위한 일자리 확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에 지역민 의무고용 추진, 사회적 기업 지원을 통해 세대를 넘나드는 활력 있는 서민경제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하나 없는 우리 중구는 지난 1월에 장현지구에 국가산단인 도시첨단산업 단지에 최종 선정되어 2019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지난 6월에는 전국에서 2개소를 선

정하는 야시장 사업에 선정되어 내년에 개장할 예정이며, 전통시장의 활력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또한, 혁신도시에는 백화점 등 대형시설 유치로 신흥 상권을 형성하여 신·구 도시가 조화되는 차별화된 경쟁력 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박승규 수석연구원** 중구의 노후화된 도심 조성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 파생되는 파급효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 울산정명 600년 이래 원도심은 태화강을 앞으로 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으로 과거 울산의 행정, 문화, 상업의 중심지로 시민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명성을 떨친 곳이었지만 급속한 산업화의 여파로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어 아직도 울산 시민들의 애환이 서린 곳입니다.

잊혀져 가는 울산 정체성의 확립과 지역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우리 중구는 옛 명성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을 도시리더로 하는 주민도시닥터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하여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롤모델로 손꼽히는 도시재생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울산의 모태, 근간으로 도약할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문화관련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의 거리를 조성함은 물론, 큐빅광장·학성로 중앙길경관개선사업·시계탑 정비



부활하는 원도(문화의 거리)

등을 통해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다수 수상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중구는 주민이 리더가 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울산의 종갓집인 원도심을 역사·문화적 정체성에 기반한 품격있는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또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민관산학 협약으로 지역의 모든 단체와 기관들이 협업하는 자생적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갈 것입니다.

**박승규 수석연구원** 2015년 5월 중소기업청 골목형시장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문화생활시장 울산반구시장은 어떠한 차별성으로 인하여 선정이 되었습니까?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특성, 성과, 앞으로의 기대방향은 무엇입니까?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 반구시장은 1985년에 개설한 시장으로 137개의 점포와 28개의 노점이 성업 중에 있으며, 상인회 가입률은 80%, 상인회비 납부율은 97%로 주변에 외솔 최현배 선생의 생가와 외솔 기념관, 학성공원, 동헌 등의 문화 자원이 풍부하고, 최근 주변 아파트들의 준공으로 1,500여 세대가 입주하였으며, 인근 공단 지역의 근로자들을 고객으로 유입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낳은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의 고택으로 '한글'이라는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글문화 테마 골목을 조성하고, 고객 소통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과 문화사랑 축제 개최로 반구시장을 체계화하려는 전략이 타 시장과의 차별성으로 선정되었다고 봅니다.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특성으로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반구시장의 브랜드 강화 및 상품의 다양성



중구 전경



으로 시장 다변화를 기대하고 우리 문화 사랑 정신 계승으로 지속적인 성장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고객이 함께하는 문화생활시장 조성의 비전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승규 수석연구원**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쇼핑과 문화생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중구만의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로 인해 견인된 중간성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 우리 구는 20개 이상 집중되는 전통시장 상권이 밀집되면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도시경관조성을 위해 단순히 평면적인 길에 입체성을 가미해 구시가지 전역에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시공간적 경관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골목길의 교차지점을 점의 공간(큐빅 광장, 꿈의 정원), 골목연계길을 선의 공간(문화의 거리, 자전거 도로, 젊음의 거리, 죽골목 특성화거리), 매개적공간을 면의 공간(성남동골목벽화, 학성로가로 등 시각화)으로 추진하여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의 일체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러한 구분없는 공간의 애매함은 상업공간의 외부배경으로 차용되면서 카페·갤러리 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공공 공간(문화의 거리 등)과 개인상공 간의 조화로 거리에 대한 주민공공성이 증대되면서 쇼핑과 문화생활공간이 상생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박승규 수석연구원** 거리문화 대표 축제로 300년 역사의 “울산마두희축제”가 있습니다. 마두희에 대한 설명과 마두희 축제가 중구 원도심에 미친 성과는 무엇입니까?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 올해 4회째인 마두희는 300년 전 조선시대 울산지역의 큰 줄다리 기입니다. 1900년대 초까지 열리다가 일제강점기 주민이 모이는 것이 통제되면서 명맥이 끊어진 것을 울산 중구에서 84년만인 2012년부터 마두희를 재연(복원)하였습니다.

울산 지역의 주산인 무룡산과 동대산의 형상이 말머리를 닮았고 동해바다로 빠져드는 형상인데, 말머리에 줄을 달아 육지 쪽으로 당김으로써 울산지역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 민속놀이입니다.

몇 년 동안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놀이라 줄 제작과정 등 재현하는 과정이 힘이



울산 큰 줄다리기 마두희

들지만 과거 문헌과 역사에 의한 고증으로 마두희가 부활이 되어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흩어졌던 문화를 다시 모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축제보다는 300년 전부터 해온 역사가 있는 축제라서 훨씬 의미도 크고 보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마두희 축제는 지역의 다른 축제와 차별화되면서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남녀 노소 35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대표 거리축제로 명성을 얻고 있고 문화관광도시로서 중구의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관광산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추세가 국내외적으로 보더라도 관광객들은 주로 도시의 원도심을 찾습니다.

우리 중구의 장점은 수천 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오랜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울산읍성 및 병영성을 비롯한 고대 성곽이 6개나 있는 성곽 도시입니다. 단위 행정 구역 안에 성곽이 6개나 있는 도시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입니다.

중구는 외솔 최현배 선생의 고향이기도 하고, 다운동 고분군, 동헌, 객사, 충의사, 구강서원

등 많은 역사 문화자산을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일찍이 울산의 모태이자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중구는 마두회를 비롯해 중구가 가진 여러 전통 역사문화자산을 복원하고 연계하는 등 문화를 도시발전의 키워드로 정책 구정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울산 중구는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지수 분석결과에서 전국 9위로 평가 받았습니다.

문화를 매개로 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한 결과 원도심이 활력을 찾고 있으며, 지난 20~30년간 침체되었던 원도심에 빈 점포가 줄었고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면서 주민들이 희망을 갖게 되었고, 문화도시로서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원도심 일원을 문화지구로 확대·개편해서 앞으로도 세계유명 역사 문화관광도시와 같이 전통과 역사의 멋과 틀을 유지하면서 문화자산을 활용해 문화관광산업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박승규 수석연구원** 골목활성화와 관련한 중구의 공동체사업 사례는 무엇이 있으며, 사업의 성과 및 특징점,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 우리 구의 젊음의 거리, 문화의 거리 등 주요 가로는 환경정비를 통해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안쪽의 골목길은 여전히 쇠퇴하고,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우리 중구는 1980년대에서 멈추어 버린 뒷골목의 특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3년부터 '문화도시발전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기본계획'을 통해 원도심 골목길 활성

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2014년에는 제1차 골목길 아트프로젝트 '성남동 똑딱길'을 조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지역문화브랜드 대상에 최우수과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제7차까지 계획된 골목길 아트프로젝트는 원도심의 침체된 골목길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



특화거리(원도심 아게이드)



로 추진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과 동의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골목경제사업으로서 지역공동체에 자생력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의 방치된 공간 및 공휴지를 활용하여 골목에 빛을 밝히는 문화발전소 등을 거점으로 한 골목상권부활을 추진함으로써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특색 있는 공동체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박승규 수석연구원** 타 자치단체의 수범이 될 만한 중구의 대표거리 및 특화거리는 무엇이 있으며, 이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 창출 또는 소득 증대와의 연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 우리 구는 젊음의 거리, 문화의 거리, 병영막창골목, 십리대밭 상점가 등 이외에도 대표거리 및 특화거리는 많습니다.

특히, 문화의 거리를 비롯한 원도심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두희 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와 페스티벌 등으로 유동인구 5배 증가, 공실률 90% 감소, 신종 아이템 업종 증가, 사회적 기업 급증 등으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상점가 매출액이 30% 증가하였고, 젊음의 거리, 병영막창골목 등 각종 상점가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유동인구가 붐비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출도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박승규 수석연구원**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의 중앙전통시장, 젊음의 거리, 문화의 거리가 지역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역 성장에 미치는 중구만의 특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 울산 중구는 중앙전통시장, 태화종합시장, 학성새벽시장, 구역전시장 등 16개의 전통시장과 젊음의 거리, 문화의 거리 등 4개의 상점가가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원도심은 중앙전통시장, 젊음의 거리, 문화의 거리 등 6개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구성되어 있어 울산의 중심 상권을 형성하였고 울산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원도심은 향교, 동헌, 객사 등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곳으로, 조선시대부터

울산의 종갓집으로서 울산의 문화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울산의 중심 상권이 남구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상권이 쇠퇴하기도 하였으나, 그 간 문화의 거리 조성, 테마관광기도 조성, 시계탑 정비사업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과 아케이드 사업, 고객지원센터 등의 시설현대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함께 공감하고 어우러지는 각종 축제 등의 문화행사도 다채롭게 개최되고 있어 이제는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는 원도심으로 변모되어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중앙전통시장, 젊음의거리, 문화의거리가 울산의 원도심으로 문화와 경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울산 지역 성장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승규 수석연구원** 끝으로, 지방자치의 발전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발전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 지방자치는 지역의 살림살이와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자체는 주민들의 소리를 잘 경청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주고 주민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가 되도록 환경 및 재정이 잘 조성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정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지자체와 중앙정부를 간접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연결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지자체의 의견을 중앙정부의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는 정책개발에 앞장서 주시고 특히 우리 중구에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제는 골목경제에 주목하자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 그 공간에 얽힌 기억·추억이 하나쯤 없는 사람은 없다. 학교를 마치면 책가방을 던지며 들어가서 군것질을 하던 골목가게에서 외상장부에 과자값을 달면 숙제를 물어봐 주고 학교고민을 상담해 주시며 우편물을 챙겨주시던 주인 아저씨가 아련하다.

그때의 골목가게는 주민들의 대소사를 챙기는 미장원 아줌마, 부모님이 늦게 오시는 아이들을 보살피던 문구점 아저씨, 오지랖 넓게 다른 집 소식을 전해주는 청과물 삼촌이 어우러진 정겨운 공동체 골목이었다.

도시화의 개발열기 속에서 점차 건물은 단단해지고 도로는 넓어지고 담장은 높아졌다. 무관심의 냉기와 피곤에 지쳐가는 요즘 도시에서도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나름 개성을 살려 핫 플레이스가 된 골목들이 등장했다. 주말마다 이런 옛날 감성의 골목을 거닐면서 소소한 기쁨을 느끼고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은 필자뿐만은 아닐 것이다.

지난날 근사하게 보이던 개발의 그림자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했던 보석 같은 스토리를 가진 골목들이 아직 우리 주변에 남아 있고, 옛 기억과 흔적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부모와 이웃들이 있다. 어려워져가는 영세 골목상권 환경에서 이들은 “살아간다” 라기보다 “살아낸다”는 표현이 적절한 모습이다.

그동안 추진된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은 그 효과가 지속가능하지 못했고 그 이익이 지역주민에 골고루 분배되지 않고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부양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웠다.



**박상국**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골목경제팀장



문화와 창의는 자본과 규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듯이 유동인구 확대와 상권형성에 치우치는 기존 도시단위 개발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작은 실물 경제인 골목을 기초로 마을·일·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의식을 회복하고 동네개성을 지켜내고 자주적으로 상권을 발전시키는 형태의 주민주도적 지역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도심지역보다 골목을 주목하는 이유다.

### 개발과정의 주민소외와 젠트리피케이션

지역경제 진흥을 목표로 도시재생사업, 상점가 활성화, 전통시장 사업 등 각 기관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하드웨어적 지원 사업이 주를 이루어 골목상인과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다.<sup>1)</sup>

또한, 개발사업 이후 지역공동체 붕괴로 인한 상가의 프랜차이즈화 등 대기업 자본유입으로 인한 골목상권 파괴에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기존 골목고유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자연, 건물, 문화재, 전통, 개인재능 등)과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쉽다.

사업 진행과정에서도 주민들의 희망은 민원으로 폄하되어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는 등 절차에서 소외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젠트리피케이션<sup>2)</sup> 등의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골목의 정체성과 개성이 파괴되고 대자본의 획일성을 바탕으로 공장에서 찍어낸 듯 유사한 골목상권이 계속 양산되게 된다.



양산된 골목상권은 관광객의 소음과 난립한 조명·간판 공해, 집값과 임대료 상승의 부작용을 수반하고, 이익 집단화와 갈등이 조장되며, 기존 창작가들과 주민들은 발전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높아지는 임대료를 감당 못해 떠나게 되면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1) 소상공인 경기지수는 '14. 1월(88.6) → '14. 4월 세월호(45.9) → '15. 1월(51.1)

2)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가 처음 사용한 개념. 신사계급을 뜻하는 "젠트리"에서 파생된 말로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면서 구성원이 변동되는 현상

나 대기업의 쇼핑체인점이 들어서면서 동네의 정서가 바뀐다.

이러한 개발과정이 진행되기 전에 주민-상인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변화를 건강하게 조정·발전시킨다면 사업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바뀐다.

골목사업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고 화합축제, 재능기부, 소식지 발간 등 활동을 통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을 활성화하며 청년사업가 등 창업아이템을 보완하는 등 사업의 순기능을 확장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그 골목만의 특색 있고 고유한 골목상권을 만들어가는 것은 지역 주민과 상인 모두에게 호응을 얻는다.

### 골목경제사업의 추진체계

행정자치부에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쇠퇴되어 가고 있는 골목경제<sup>3)</sup>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동네상권을 위한 골목경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골목경제사업은 제과점, 세탁소, 구멍가게 등 근린생활 소규모 점포가 모여 있는 골목상권을 상인·주민·공동체가 주도하여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주로 구도심이 신도시 조성, 상권이전, 인구유출 등으로 쇠락하게 된 서민형 생활상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뉴타운, 재개발 등 각종 개발·정비계획 지구로 이미 지정된 곳과 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상점가는 제외하여 기존 사업과 중복지원을 방지하며 골목경제협의체(주민, 상인회, 조합, 법인, 마을기업 등)의 추진의지가 강한 지역과 골목자산이 풍부하고 컨설팅(스토리텔링)을 통해 활성화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한다.

추진방식은 주민, 상인,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골목경제협의체<sup>4)</sup>가 주도하여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자치부 자문단이 컨설팅을 수행하며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수행한다.

골목상권의 유형으로 고유한 전통과 역사를 활용한 역사자원형,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문화예술형, 특산물, 음식 등과 연계한 음식특화형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단순 시설사업이 아닌 H/W+S/W가 복합된 종합지원 형식으로 추진한다.

3) 골목경제협의체 주도로 골목이 지닌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여 지역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효과를 지역에 환원하는 골목단위 경제

4) 주민, 상인, 이해관계자(법인, 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활동가) 등 지역의 사회경제적 생활을 공유하며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경제협의체

사업내용은 골목경제협의체 구성(조직, 임원, 규약 등), 교육장, 공연장, 풍물방송국 등 거점시설을 설치하는 랜드마크 조성, 골목의 역사문화 전통 등을 대중적 이야기로 가공하여 브랜드화하는 스토리텔링과 캐릭터개발과, 골목의 테마에 부합하는 인테리어, 옥외광고물 등 상점가 디자인 개선, 기존 골목의 특성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보완하는 상권재구조화, 이벤트 개최, 골목지도 작성, 골목상권 홈페이지 구축, 창작 체험공방, 골목사진전 등 참신한 콘텐츠 개발과 홍보 프로모션, 주민 세미나, 상인역량강화 아카데미, 사랑나눔 바자회, 화합한마당, 주민벼룩시장, 골목소식지 발간 등 주민과 상인간의 커뮤니티 증진활동 등이 추진된다.

또한 골목경제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은 일정기간 임대료를 동결하여 기존 상인을 보호하고 창작공간의 임차를 통한 창작인 보존에 관한 사항과, 기존의 침체된 상가에 활력과 혁신아이디어를 확산하는 청년일자리사업, 재능기부, 결혼가정 돕기, 다문화가정 배려 관련 사업들도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이익 추구 및 지역 갈등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 골목경제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월 5일 「2015년에 골목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지역에 부산 서구(백년 송도 골목길)와 경북 영주시(내일로, 영주로, 영빌리지)를 선정하였다. 골목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은 지난 7월 공모하여 전국 지자체 20개소가 신청하였고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2개소가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부산 서구는 1913년 개장한 대한민국 제1호 공설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 진입골목으로 연간 6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상권이었으나, 2005년 주변도로 개발 시 해수욕장 주출입로가 확장·변경되면서 관광객이 급감하고 상권이 위축되어 기존 점포의 30%가 폐업하는 등 골목상권이 붕괴의 위기에 빠졌다.

이에 지역상권을 살리고자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뚝뚝 뭉쳐서 백년송도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2013년부터 업종전환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유치, 송도 달집축제 활성화, 재능기부 이벤트 개최, 주민참여 벼룩시장 등을 운영해오다 골목경제 시범사업에 공모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이 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백년송도 골목길과 거북섬, 송도 구름산책로를 이은 관광코스를 신설하고, 셋디·톤즈마을의 스마일 투어와 연계한 관광객 유도 방안 등 관광명소



화 계획과 송도의 역사적 가치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간판 정비, 열주등 설치 등 골목옛길 재현의 환경개선과 골목여행 지도 제작을 통해 건기좋은 골목길을 조성하며,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통한 상인교육, 주민과 상인이 소통할 수 있는 주민축제와 쿠폰북을 이용한 상권연계 추진 등 상권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백년송도추진협의체의 건물주와 상인들은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고 상권충돌방지를 위한 조정기구를 마련하는 상생협약도 체결하였다.



경상북도 영주시 선정지역은 1972년 개교한 경북전문대학교 앞 학사골목으로 학생 수 감소, 시설낙후, 인근 역세권 중심의 대형상권 형성으로 하숙집 공실이 증가하는 등 10여 년 전부터 쇠퇴한 구도심 지역이었다.

이에 주민과 상인들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고민을 시작하였고, 경북전문대와 영주시 아트센터 입주 예술인들이 지역 상권을 살리고자 주민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여 골목경제 시범사업에 신청하게 되었다.

이 지역의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계획으로 공실점포를 리모델링해 원룸보다 저렴한 하숙을 운영하고, 방학기간 동안은 여행자 게스트 하우스로 전환하여 운영하며, 지역내 청년들의 예비창업을 지원하고, 도보 15분 거리의 영주역과 연계하여 코레일 내일로(청년철도패스) 등 철도여행자에게 숙박·여행정보 제공 등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골목경제협의체 주도로 10년간 상가 임대료를 동결하는 등 학사골목의 상권을 살리고자 상인과 건물주가 고통을 분담하기로 약속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7년까지 10개소를 운영할 예정으로 2016년 4개소, 2017년 4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우리 몸도 혈관의 싹뚫출까지 혈액이 공급되어야 건강하듯이 내수경제의 기초이고 우리 삶의 현장인 골목의 영세상권까지 경제활성화 정책의 온기가 전달되어야 한다.

지역의 주민과 상인이 상생·협력하여 그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그 지역에 다시 재투자되고 소비되는 지역내 순환경제 구조의 롤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골목경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지금도 골목상권을 지키고 계시는 우리 이웃들을 응원한다.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방안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 수석연구원

## 1. 골목경제의 개념과 의의

‘골목’은 큰 길에서 들어가 동네 안을 이리 저리 통하는 좁은 길을 말한다. 중세 이후 유럽도시에 많이 나타난 골목(alley)은 좁은 뒷길(narrow back street)을 말하며, “도로에서 이면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연속된 건물들을 통과하여 뚫린 통행로”로 정의된다. 큰 길 안쪽의 마을과 동네의 사람살이가 가능하려면 외부와 마을, 마을 내 집과 집을 이어주는 골목이 필수다.

골목 속의 경제는 마을 내에서 빈번하게 상면(相面)하는 거주민들 상호간에 발생하는 경제활동을 총칭한다. ‘골목경제’는 학문적 용어는 아니며, 마을 또는 동네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지역경제를 상징적으로 일컫는 단어다. 즉 일정한 지역사회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와 관련된 모든 인간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골목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은 상당부분 권역 내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방성이 적고, 지역주민이 곧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골목경제가 살아나면 신선한 먹거리 제공, 공정거래 활성화, 지역 내 생활여건 개선 등 그 자체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의 선순환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자동차문화가 보편화되고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할인점이 동네까지 침투하여 전통적인 골목의 모습과 골목의 공

동체 기능이 점차 상실되어 가는 지금 골목경제가 활성화되면 경제공동체,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가 복원될 수 있다. 골목경제 속에서는 지역주민이 곧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중요하다 하겠다.

## 2. 골목경제 관련정책의 한계

현재 골목경제와 관련된 정부정책은 중소기업청을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에서 추진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는 주로 등록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전성시 사업'을 통해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2015년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사업으로 통폐합되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와 관련하여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중 '중심시가지 재생' 사업이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중 '중심시가지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주로 시장 내 상점이 50개 이상인 전통시장을 지원하거나 부처의 특성상 상인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시'를 대상으로 시설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중심시가지지를 재생하거나 도시 내 쇠퇴지역의 경제·사회·물리적 재생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조직화된 마을단위의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골목경제와 관련된 정부정책상 50개 미만의 소규모 상점가가 포함되는 골목경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전통시장이 아니라면 지역유형을 '도시'로 한정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넓은 의미의 골목경제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상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인과 지역주민을 포괄하는 마을 속 경제살리기를 지향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고 공동체 회복을 통해 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1〉 골목경제 관련 정책

부처	사업명	주요내용	필요사항
중소 기업청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등록된 전통시장(시장 내 상점 50개 이상) 대상(무등록/미인정시장 및 상점가 제외)</li> <li>• 전통시장을 제외하고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여 지원해(인구 50만 이상은 상점 700개, 50만 이하는 400개로 대규모 상점가 대상)</li> <li>• 시설조성사업 위주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경영컨설팅사업을 추진하나, 모두 상인만 대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50개 미만의 소규모 상점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골목경제 대상 지원 필요</li> <li>• 상인·지역주민을 포괄하는 마을 속 경제살리기 지향 필요</li> </ul>
	소상공인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창업/성장/재도전 단계의 사업 지원</li> </ul>	
문화체육관광부	문전성시 프로젝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문화를 통해 관광지로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나, 결국 중소기업청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만을 대상으로 함</li> <li>•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사업으로 통폐합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목경제활성화 사업의 한 유형으로 문화예술형이 포함됨</li> <li>• 역사지원형/문화예술형/음식특화형 등 다양하게 추진 필요</li> </ul>
국토교통부	도시활력 증진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발전특별회계 내 부처별로 구분되어 있는 지역유형 중 '도시활력증진지역'(특별·광역시의 군구 및 시 지역 중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 지역)에 해당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함(시설정비 위주)</li> <li>• 도시활력증진사업 중 지역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 시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중심시가지재생'사업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사업의 '도시'를 기반으로 주로 시설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접근</li> <li>• 골목경제활성화는 지역유형을 구분하여 대상지를 '도시'로 한정하지 않음</li> </ul>
	도시 재생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기반이 상실된 도시 내 쇠퇴지역의 경제·사회·물리적 재생을 위해 사업추진</li> <li>•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되는데, 근린재생형 사업의 일환으로 '중심시가지형'사업이 포함됨(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경쟁률 치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휴먼웨어 복합지원 필요</li> <li>• 지역주민·상인이 소통하는 마을공동체의 거점 형성</li> </ul>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주민이 주도</li> <li>•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조직화된 마을 단위의 기업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기업뿐만 아니라 마을의 경제공동체 모두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 필요</li> </ul>

출처: 박진경 외(2015), 「주민주도형 골목경제활성화 지원사업 추진방안 연구」, 행정자치부.

### 3. '마을 속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지원과제

골목경제는 소비자들의 실제 거주지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역주민들의 생활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골목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중심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골목경제는 유통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외부요인에 대한 대응속도



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정보 접근성 또한 떨어져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골목경제가 지역밀착형 상권으로 기능적인 개조를 이루는 것과 함께 '마을 속 경제' 즉 '골목경제'라는 인식이 상인과 지역주민들에게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은 첫째, 상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모두 함께 '마을 속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골목경제의 지역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여 골목경제의 주된 주체인 골목상인들과 골목경제를 이용하는 소비자인 지역주민들이 골목경제가 단순히 상행위가 일어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의 거점으로 인식하여 함께 지키고 살려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골목상권이 주된 커뮤니티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며, 주변의 지역 공동체가 연계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역공동체적 접근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를 추구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권의 문제해결, 더 나아가 지역 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골목경제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을 형성하여 생계를 영위해 가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골목상권을 지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공뿐만 아니라 지역의 시민단체, 상인단체 등에 의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의제로서 골목경제 살리기가 꾸준한 이슈가 되어 왔다. 상인들 스스로도 소위 '상인들의 마을만들기' 식의 움직임들이 추진되어져 왔는데, 상인들의 마을만들기 시도는 골목경제 내에서 마을공동체 정신과 협력을 중시하는 사회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골목상권 형성에 기여해왔다. 현재 상인들의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시책은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등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례가 있기는 하나 제한적이므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 공동체의 자구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

셋째, 골목의 특성과 지역자원을 고려하여 자원을 다각화하는 시책이 필요하다. 물리적인 환경개선사업에만 그치지 않고 골목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 할 하드웨어·소프트웨어·휴먼웨어 복합형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골목의 모습과 자원 및 주변 마을에 내재된 역사, 문화, 전통의 가치를 스토리텔링으로 재탄생시켜 장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국내사례〉

# 임꺽정 이야기가 살아 있는 거리, 부천시 역곡 임꺽정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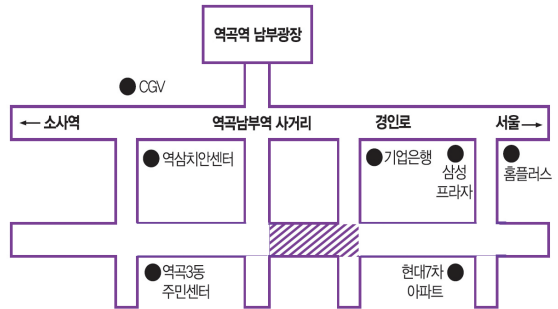


이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부천시 역곡역 남부광장과 이어지는 부광로 10번길(연장 140m, 폭 8m) 먹자골목에 들어서면 이 길이 임꺽정로임을 단박에 알 수 있는 이정표와 함께 동상이 서있다. 임꺽정로는 실제 도로명이 아닌 명예도로로서 물리적 환경정비와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연계한 원도심 재생사업으로 조성되어 침체된 상권이 다시 활력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sup>1)</sup>

이 지역은 역곡역(1호선(경인선))과 역곡 남부시장이 인접해 일일 10만 명의 유동인구가 물리는 곳이지만 도로포장 불량, 보행공간 협소, 무질서한 간판, 건물 노후 등으로 상권이 침체되어 활성화가 시급한 지역이었다. 이에 부천시는 2013년 5월, 도시균형발전을 위



1) 박진경 외(2015), 「주민주도형 골목경제활성화 지원사업 추진방안 연구」, 행정자치부, 요약

한 원도심 활력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보행공간 및 특색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 간판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역곡 문화의 거리’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1, 2단계로 나눠서 진행하였고, 1단계 사업으로 진행된 임꺽정로 조성은 현재 완료된 상태다.

## 가로 브랜드 「역곡 임꺽정로」가 되기까지

부천시는 만화도시의 특성을 살리고 거리에 개성을 주기 위해서 2013년 8월, 도시디자인팀과 주민협의체에서 상가 분위기와 역사적 관계, 이미지를 가장 잘 부각시킬 캐릭터로 ‘임꺽정’을 선정하고 가로 브랜드를 ‘역곡 임꺽정로’로 확정하였다.

부천시와 임꺽정의 관계는 역사소설 ‘임꺽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임꺽정은 달골(안성)에서 황해도 청석골로 떠날 때 관군의 눈을 피해 오자산(안산)과 소래산, 계양산, 문수산을 거쳐 김포 한강 하구에서 배를 타고 황해도로 잠입했다고 전해지며, 당시 임꺽정의 주 이동경로는 소래산, 성주산, 월미산 줄기를 아우르는 부천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13개 건물에 42개 점포가 운영 중인 먹자골목은 임꺽정로가 조성되기 전부터 영업 전에 상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상인들 간의 일상적인 교류가 활발했고 결속력이 높았던 지역이었다. 더욱이 역곡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상인들의 결속력이 더욱 높아졌다.

역곡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임꺽정로 조성사업(2013년 10월~2014년 6월)’으로 명칭을 바꿔 폭원 8m인 도로를 4m로 축소하고 사유지를 포함하여 보행로 조성, 도로포장, 문



임꺽정로 조성 전



임꺽정로 조성 후



만화 임꺽정을 테마로 한 간판정비

주 및 보안등을 설치하였다. 이때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고 부천시청과 구청, 동사무소 등 행정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서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거리환경 개선사업인 간판정비 사업은 임꺽정로 조성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2014년 2월에 착수하여 당해 10월에 완료되었다. 간판정비의 주안점은 토속음식점이 많이 자리한 거리 특성과 개별 점포의 상징성을 반영하여 생동감 있는 테마거리 조성이었다. 특히 만화가 이두호 화백의 재능기부로 만화 '임꺽정'의 내용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연결되는 간판디자인을 기획하였다. 임꺽정로의 각 구간별로 '1부 백정의 아들 임꺽정', '2부 구공스님의 만남', '3부 활의명수 장학봉', '4부 돌발매질 조금맹', '5부 모시꾼 서림의 배신'의 테마를 설정해 방문객들의 재미를 더했다.

한편 부천시는 임꺽정로에 대한 물리적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상인들의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경험을 되새겨 상인들의 동력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부천시 김만수시장은 '단순한 물리적 정비를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사업'을 지시하였으며, 원도심지원과는 임꺽정로, 부천대학로, 도당동 판타박스, 작동 까치울마을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입체적 시범마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부천시의 입체적 시범마을 사업은 물리적 환경정비 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계획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물리적 환경개선에서 시작된 재생의 움직임을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주도적 참여로 연계시키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참여 활성화와 마을계획 지원을 위해 컨설팅업체를 각 지역별로 선정하였으며, 1년간 컨설팅 활동을 진행하였다.





공동메뉴판



통용화폐

임격정로 상가에는 상인조직인 상우회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물리적 환경정비를 통한 주민협의체 등 자체적인 역량이 있는 지역으로서 컨설팅 지원단(조정사무소 울)은 마을만들기 교육, 부평문화회의 거리 답사, 공동메뉴판 제안, 홍보, 공동화폐, 음식문화축제 등을 기획하였다. 컨설팅 지원단은 상인과 함께 논의하면서 실천력을 확보해나가는 등 자체적인 활동력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특히 임격정 공동메뉴는 여타 상가 활성화 사업에서 보기 힘든 사례로 '우리 가게' 중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상가거리'라는 상생의 길을 마련한 것이며, 이는 상권이 개별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권 자체의 활력이 우리 상점의 활력'으로 환류 됨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다. 또한 역곡 남부시장과 상우회에 속한 모든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인 '임격정로 통용화폐'를 제작·운영하는 등 상가를 활성화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고 있어 거리 조성 후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는 자치단체가 증가하면서 상인들의 자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정기적인 회의 운영, 운영진 역할 분배, 일반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체계와 책임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기존의 주민협의체에서 마을활동에 적극적인 상인과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행정(부천시, 동사무소)과 컨설팅 지원단이 함께 참여하는 '발전협의체'로 재구성하여 의사결정을 공식화하였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는 '주민들만의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주민을 중심으로 한' 지원시스템을 공식화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시스템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임꺽정로 상권 활성화는 비록 가로환경 정비에서 시작되었지만, 물리적 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민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입체적 시범마을이라는 연속사업을 기획함으로써 구도심 재생으로까지 연계시킨 사업이다. 특히 쇠락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던 것은 임꺽정로 가로개선 사업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 및 전략' 수립을 주민들이 자립적으로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끔 지원해준 '컨설팅지원 사업'과 공식적으로 주민을 지원한 '발전협의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 골목경제 활성화 해외사례 : 중국 상하이 티엔즈팡 (田子坊) 예술골목

티엔즈팡(田子坊, Tian Zi Fang)은 중국 상하이의 충칭난루(重慶南路)와 루이진얼루(瑞金二路) 사이에 있는 타이강루(泰康路) 210弄에 위치한 예술거리이다. 상하이가 1843년 11월 개항하면서 조계지역이 설정되었는데 티엔즈팡은 1846년 프랑스의 조계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이기도 하다. 원래 이 곳은 가내 수공업 공장들이 자리하던 곳이었고 주변 타이강루 지역은 과일과 채소를 팔던 재래시장이었던 곳이 오늘날 상하이를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러야 할 명소로 탈바꿈하였다.

상하이의 예술골목인 티엔즈팡은 '상하이의 소호'라는 애칭으로 불릴 만큼 좁은 골목들 사이로 갤러리, 아트샵, 공방 등 예술품점과 카페, 바, 식당 등 휴식공간이 한데 어우러져 관광객이 몰려드는 세계적인 예술의 거리로 유명하며 우리나라의 인사동과 흡사한 거리이다. 티엔즈팡은 1930년대 공장지대였던 곳이 공장들이 이전하면서 옛 거리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 1999년 새롭게 예술촌으로 단장하였다. 골목을 재단장한 후 상하이의 젊은 아티스트들이 모여 갤러리 겸 작업실을 열면서 규모가 점점 커졌고 지역의 입소문을 타고 확대되어 지금의 명소로 거듭나게 되었다. 1999년 화가 황영위(黃永玉)가 타이강루(泰康路 210弄)를 '티엔즈팡(田子坊)'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한나라 초 유향이 지은 역사책 「전국책(戰國策)」에 나오는 예술가 전자방(田子方)과 발음이 '티엔즈팡'으로 같다는 점에 착안하여 예술인들이 모인 곳으로 비유하였다.

1980년대 이후, 상하이의 도시 재개발 기본 전략은 원주민을 몰아



김선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내고 대규모 아파트와 사무·상업용 건물을 짓는 것이었다. 이런 재개발 전략에 따라 상하이에 오랜 시간에 걸쳐 조성됐던 거주 커뮤니티는 상당수 사라졌다. 상하이시는 특히 저소득층 밀집 지역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축에 속했던 티엔즈팡에도 ‘철거 후 재개발’이란 도시 개발 전략을 적용코자 했다. 하지만 상하이시는 지역 주민과 지역에서 활동하던 예술인들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기존 커뮤니티를 보존하면서도 지역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 전략을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티엔즈팡 주민의 삶이 생생히 담긴 지역 고유의 모습을 유지하며, 기존 건물 내부에 스튜디오, 갤러리, 공방, 카페, 레스토랑 등 다양한 문화 예술 공간을 입주시켰다.

티엔즈팡 개발의 세부 추진내용을 몇 가지 특징으로 살펴보면 첫째, 전통골목의 밀집 지역을 옛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티엔즈팡은 ‘田子坊’이란 이름에서 보듯이 밭 전(田)자 모양의 단지에 짧고 좁은 골목이 미로처럼 얽혀 있는 골목촌이다. 티엔즈팡의 골목들은 곧은 직선에서 가지처럼 좌우로 뻗어 있어 매우 복잡하게 보이지만 막힌 골목이 없어 미로 같은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특이한 형상을 지니고 있다. 과거의 생활이 그대로 묻어나는 비좁은 골목을 그대로 보존한 채, 예술공간을 접목시킴으로써 생활 속의 예술을 재현시키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허름한 옛 모습에서 언뜻 무질서해 보이는 골목이지만 가게의 성격과 수에 따라 갤러리가 많은 골목, 기념품샵이 많은 골목, 카페와 바가 많은 골목 등으로 나름 특성이 구별되어 있어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둘째, 격조 높은 예술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티엔즈팡은 중국 신예 작가들이 한데 모여 직접 그린 그림



티엔즈팡 미술품 판매점



티엔즈팡 예술거리





티엔즈팡 대표 캐릭터



티엔즈팡 안내도

과 예술품을 팔면서 형성된 곳으로 중국의 유명한 화가, 디자이너, 사진작가 등 예술인이 다수 입주하면서 명성을 높여왔다. 상하이의 인사동으로 불릴 만큼 좁은 골목길을 따라 빼곡히 들어선 갤러리, 아트샵, 공방, 도자기 상점, 사진점, 인테리어샵 등 격조 높고 세련된 예술 관련 상점이 밀집해 있고 유명 작가의 직접 제작한 작품도 거래하고 있다. 전통 가옥과 내부의 이국적 인테리어가 예술적으로 조화되어 관광객에게 친근하면서 특별한 느낌을 준다. 셋째, 티엔즈팡은 관광객에게 친근한 문화휴식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이곳은 쇼핑공간 외에도 세계 각국의 유명 요리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노천카페와 레스토랑이 준비한 것이 특징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카페, 바, 식당 등이 밀집해 있어 그 자체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최근 지나친 상업화로 인해 음식점과 상점이 증가하면서 본래의 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격조가 훼손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티엔즈팡이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예술골목으로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성공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첫째 요인은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의 공존이다. 정확하게는 전통적 외관에 현대적 기능의 접목이 성공의 첫째 조건이다.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건물과 골목에 현대식 찻집, 화랑, 사진갤러리, 커피숍, 아트숍, 레스토랑 등이 들어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 그리고 과거와 현대의 시점이 공존하는 옛 거리의 아늑한 골목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요인은 상하이다운 정취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점이다. 티엔즈팡에는 아직도 상하이의 토박이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상하이 고유의 전통문화와

생활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모습을 그대로 외부에 보여주고 있다. 티엔즈팡을 이루고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1930년대 지어진 스키펜(石庫門)가옥(스쿰가옥은 중국 전통가옥인 사합원(四合院)과 서양식 가옥이 융합된 형태로 19세기 상하이의 정취를 담고 있는 건물)이 그대로 존치해 있으며 그 안에서 옛 것과 새 것, 동양과 서양, 관광객과 주민, 예술과 상업이 한 장소에 재미있게 어울려 있어 상하이의 복합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명소이다. 셋째 요인은 판매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품질과 경쟁력이 우수한 점이다. 갤러리, 아트샵을 기본으로 도자기 상점, 사진점, 인테리어샵 등 독특하고 세련된 제품들을 파는 곳이 집적되어 있고 실제로 실력 있는 디자이너와 작가들이 만든 작품들을 진열해 놓고 있어 품질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은 편이다. 티엔즈팡에는 차나 향초와 같은 일반적인 상품에서부터 공방에서 직접 만드는 핸드메이드 상품 까지 다양한 기념품을 거의 망라하고 있어 관광객에게 큰 호평을 얻고 있다.

# 국가 정원 호, 순천만 정원을 품고 있는 순천

순천만 정원축제로 잘 알려진 순천시(順天市)는 국토의 남단에 위치하여 영호남을 연결하는 전라남도 동부의 교통요지이다. 순천시는 1995년 승주군과 통합하여 도농복합시가 되었으며,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문화유산이 풍부한 관광지역으로 행정구역은 1읍 10면 46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농복합시로 통합된 1995년 인구는 24만여 명이었으나, 2015년 8월 말 기준으로 28만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인구분포면에서 보면, 읍·면지역에 시 전체인구의 29.22%, 동지역에 70.78%가 거주하고 있다.

순천지역은 정유재란 당시 왜군이 침입하여 우리나라 대표사찰의 하나인 선암사가 소실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일제 강점기 때에는 일제에 항거하여 3·1독립운동 만세시위를 전개하였고, 박병두를 주축으로 시작한 소작쟁의 운동은 1920년대 전국적인 소작쟁의 운동의 효시가 되었던 독립운동의 고장이기도 하다.

▼ 순천만 전경







▲ 순천만 갈대숲

세계5대 연안습지 순천만은 여수반도와 고흥반도가 에워싸고 있는 항아리 모양의 만이다. 순천만은 5.4km<sup>2</sup>(160만 평)의 뾰뾰한 갈대밭과 끝이 보이지 않는 22.6km<sup>2</sup>(690만 평)의 광활한 갯벌로 이루어져 있다. 순천만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철새는 총 230여 종으로 우리나라 전체 조류의 절반가량이나 되며 2003년 습지 보호지역, 2006년 람사르협약 등록, 2008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41호로 지정, 2015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정원 1호로 순천만 정원이 지정되었다.

그러나 순천에 순천만 정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순천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림책도서관이 있다. 편안한 자세로 그림책을 볼 수 있도록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였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그림 전시도 감상할 수 있는 이색적인 도서관이다.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그림책 도서관은 그림책은 어린이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만 버리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순천지역에서는 청동기 시대의 유물·유적이 발견되었으며, 삼국시대 유적인 옥천동 고분이 있다. 잘 알려져 있는 낙안읍성 이외에도 삼국시대에 쌓은 매곡산성과





▲ 순천 그림책 도서관

인제산성, 순천읍성, 고려시대의 유적인 팔마비(八馬碑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76호) 등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시이다.

또한 순천에는 우리나라 불교문화의 요람이라 불릴 만큼 불교문화재가 많으며, 대표 사찰로 손꼽히는 송광사와 선암사가 있다. 송광사는 불교역사의 전통을 계승한 사찰로 16국사를 배출한 우리나라 삼보사찰 중 승보사찰이다. 선암사는 신라 말기 도선이 중창한 사찰이며, 태고종

본산으로 중요한 문화재를 많이 소장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순천시에서는 매년 다채로운 전통 문화축제와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남도고유의 향토 문화적 색채를 간직한 낙안민속문화축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순천만갈대축제 등 역사와 전통을 살리는 다양한 축제들이 열리고 있다.

이제 순천은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로 새롭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정원 1호 지정을 계기로 순천시에서는 정원산업 육성, 생태관광 활성화 등 관련 산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순천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을 통해 자연과 어우러진 힐링도시로서의 재도약을 시작하고 있다.

▼ 순천 낙안읍성



**제3차  
정책분석평가방법론  
워크숍 개최**

**일시** 2015년 10월 21일(수) 10:30 ~ 12:00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는 2015년 10월 21일 수요일, 연구원 5층 세미나실에서 '제3차 정책분석평가방법론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워크숍은 전명진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의 '지역투입-산출모형(Regional Input-Output Model)을 응용한 지역정책분석'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제20차  
연구심의위원회  
개최**

**일시** 2015년 10월 26일(월) 15:00 ~ 17:00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5년 10월 26일 월요일, 연구원 5층 세미나실에서 '제20차 연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시도 정책연구과제 중간보고, 행정자치부 정책연구과제 착수보고, 수탁용역연구과제 중간보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2015년

### 추계 체력단련대회

일 시 2015년 11월 3일(화)

장 소 청계산 일대

주 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하혜수) 임직원 일동은 '2015년 추계 체력단련대회'를 2015.11.3(화)일 청계산 일대에서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1부는 오전에 청계산 등산을 하였으며, 2부는 족구시합을 하였다. 청계산 등산은 원터골에서 옛골로 이어지는 코스로 비교적 완만하여 매봉(582.5m)정상까지 23명이 참여했다. 날씨도 좋았으며, 등산후 체육행사로 '족구'시합을 하는 등 전 직원이 단합하여 성황리에 끝났다.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워크숍

일 시 2015년 11월 5일(목) ~ 6일(금)

장 소 인천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대강당

주 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2015년 11월 5일(목)부터 11월 6일(금)까지 양일간, 충북 인천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의 이해',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모색', '지방재정투자제도 발전 방향',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의 개관', '사례로 보는 지방재정 투자사업과 타당성조사'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본 워크숍에는 공무원, 시·도 연구원을 포함하여 총 143명이 참석하였다.





**사회공헌 활동 업무  
협약식**

**일시** 2015년 11월 10일(화)

**장소** 원주시 투자상담실

“지역 봉사주민 삶의 질 향상 공공기관이 앞장”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 사회 공헌에 앞장서기로 했다. 원주시와 12개 공공기관 대표자들은 10일 원주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원주시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창목 원주시장을 비롯해 당 연구원에서는 김선기 부원장이 참석했다. 참여 기관들은 업무 협약으로 저소득층 서비스 연계 지원, 사회공헌 활동 지원, 나눔 문화 확산 노력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은 공공기관 원주이전에 따라 나눔 문화 확산 및 사회적 이행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업무협약을 통해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다. 변성애 이사, 김영호 부사장 등 참석자들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앞장서겠다.”며 “지역에 특화된 봉사활동을 개발해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의  
지역재생 및 창생  
세미나 개최**

**일시** 2015년 11월 11일(수) 14:30 ~ 17:5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신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5년 11월 11일 수요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한국과 일본의 지역재생 및 창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지방재정위기  
극복방안모색을 위한  
세미나**

**일시** 2015년 11월 13일(금) 14:00 ~ 16:30  
**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  
**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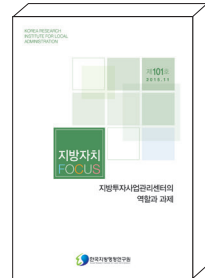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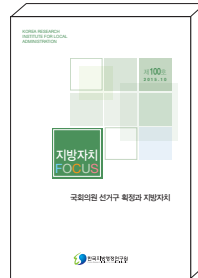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5년 11월 13일 금요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지방재정위기 극복방안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발간물**

「지방자치 Focus」 제100호 발간

**제 목**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과 지방자치  
**저 자** 이병기(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고경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지방자치 Focus」 제101호 발간

**제 목**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역할과 과제  
**저 자**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교육연수 [담당자: 이혜선 02-3488-7353]**

**12월 교육일정**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일정
사업예산과 복지부기회계	3일(비합숙) (21시간)	제6기 12, 2(수) ~ 12, 4(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 실천포럼 알림마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되는 책자 및 소식지를 무료로 홍보해 드립니다. 홍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Tel. 02-3488-7361 / newsletter@kriia.re.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기업이 혁신하면 주민이 행복해 집니다

불필요한  
재정낭비  
Down!  
꼭 필요한  
주민서비스  
Up!



## 부실 지방공기업!



### 유사한 지방공기업 하나로!

유사·중복 지방공기업을 과감히  
통폐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지방공기업, 민간영역은 이제 그만!

공공성이 낮고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은 과감히 민간으로 이양하겠습니다.



### 빚 많은 부실공기업, 일대일 중점관리!

부채가 많은 지방공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부채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17년까지 부채 총 8.4조 원을 줄이겠습니다.]



### 되살아나기 어려운 부실공기업 과감히 OUT!

부채상환능력이 없고 사업전망이  
없는 부실지방공기업은 신속하게  
청산하겠습니다.



### 지방공기업 사업 유리알 공개

사업담당자, 사업진행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이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혁신,  
100년의 미래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국가인재를 찾습니다

# 국민추천제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장·차관 등 정부 주요직위 후보자를 추천해 주십시오.

- 직 위** | 중앙부처 장·차관(정무직)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 대 상** | 직위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춘 인재(공무원 포함)
- 시 기** | 언제나
- 방 법**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www.hrdb.go.kr](http://www.hrdb.go.kr))를 방문하여 주변 인물을 추천(타천)하거나 본인을 추천(자천)
- 활 용** | 사실 확인, 적합성 판단 등의 절차를 거쳐 공직후보자로 선별·관리



인사혁신처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Human Resources Database

지난호 Issue  
공유재산

10

**지방자치실천포럼**

-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특별대담**

-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  
: 이재명 성남시장

